

보성군, 여자만 국가갯벌해양정원 조성사업 청신호



보성군이 전라남도와 역점으로 추진 중인 '여자만 국가갯벌해양정원 조성 사업' 기본 계획 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군에 따르면 지난 27일 전라남도에서 열린

'여자만 국가갯벌해양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에 김철우 보성군수,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등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 사업으로 4개 시·군

주민 소득 증대 및 정주여건 개선
해양보전·관광 활성화 될 것 기대

(보성·순천·여수·고흥)을 품은 여자만의 갯벌 환경·생태 복원과 수산자원 회복을 통해 주민 소득 증대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해양보전과 관광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갯벌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와 함께 갯벌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관찰대 설치 사업 등을 추가 반영토록 요청했다.

'여자만 국가갯벌해양정원 조성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2,185억 원 규모의 국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오는 10월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고,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 예정이다.

추진전략 3대 목표는 건강한 갯벌·바다, 생태문화 힐링거점, 지역상생·발전이며, 세부사

업은 갯벌습지지원센터, 블루카본생태학교, 갯벌보전·생태탐방로 등 13개의 단위사업으로 이뤄져있다.

'국가해양정원' 사업은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이며, 가로림만 해양정원, 호미반도 해양정원 사업이 현재 예비타당성 신청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한편 보성군은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 2018년부터 여자만 국가갯벌해양정원 조성 마스터플랜을 계획하고, 2020년 사업 추진을 위해 순천시와 협의체를 구성했다.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논리 개발을 통한 건의로 전라남도 1단계 사업으로 선정됐다.

보성=김덕순기자



18회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
설렘과 기대로 분위기 고조
10월 7일부터 3일간 광양읍 전역서

4년 만에 개최되는 제18회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가 가을 코스모스 개화와 함께 성큼 코앞에 다가왔다.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추진위원회는 가을 대표 먹거리 축제인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를 10월 7일부터 3일간 광양읍 사천면 일원과 전남도립미술관, 예술창고 등 광양읍 전역에서 문화행사로 개최한다.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과 2020-2021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4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아시장을 참여시키지 않고, 모든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지역예술인 공연 행사로 구성했다.

특히, 첫째 날에는 광양시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해 출생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관련된 사진전과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축제 식전 행사로 광양시립합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불꽃놀이와 함께 축제의 서막을 올린다.

둘째 날에는 음면동 풍물단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는 광양시 농악 한마당이 펼쳐지고, 여수·순천·광양 아마추어 음악 경연 대회인 제12회 광양만권 화합의 가족 콘서트가 9팀의 본선 경연과 초대가수 공연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10월 9일에는 광양지역 아마추어 음악동아리 '포에버윈드오케스트라' 공연과 난타를 비롯한 타악 공연, 버스킹 등 지역 예술인들 축제의 장이 열린다.

또한 불고기 식당을 위한 축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광양읍 전역에서 숯불을 이용한 음식을 먹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추첨권을 드리는 '광양 숯불구이 먹고 황금 열쇠를 잡아라' 행운권 추첨을 끝으로 3일간의 행사를 마무리한다.

광양=김현근기자

고흥군, 귀농산어촌 고향사랑박람회서 도시민 유치

고흥군이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서울 aT센터에서 열리는 '2022년 전남 귀농산어촌 고향사랑박람회'에 참가해 도시민 유치를 나선다.

이번 박람회는 전라남도도와 도내 22개 시군이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130여 개 기관·단체가 참가해 귀농귀촌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 상담하고 지자체별 농·특산물 전시·홍보·판매와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도 함께 이뤄진다.

고흥군은 "우주로 가는 출발지 고흥, 귀농어귀촌인의 정착지 고흥"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귀농어귀촌 상담부스를 운영해 도시민들에게 고흥만의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제도를 홍보하며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고흥 정착에 성공한 선도농업인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 도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30일에는 지자체 특강에 나서 고흥의 생활여건과 귀농귀촌 제도를 선보일 계획이다.

고흥=기동취재본부



12개 사회단체,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여수 유치' 지지하는 성명서 발표

여수시청 현관 앞에서 여수시주민자치위원회 등 12개 사회단체 지지 성명

여수시 12개 사회단체가 28일 오전 여수시청 현관 앞에서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여수 유치'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수시주민자치위원회, (사)여수수산업협회, 여수시새마을회 등 12개 단체는 이날 지지성명을 통해 "여수시는 다양한 해양수산자원과 오랜 역사문화를 지닌 전남 제1의 수산도시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양수산 전시 국립시설이 없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10년이나 지났지만, 사후활용은 지지부진해 박람회장이 방치된 채 녹색아가고 있다.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여수 유치는 박람회장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해양수산자원과 역사를 빛낼 절호의 기회다"며 호소를 이어갔다.

12개 단체는 또한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 개최한 자금심으로 지역민 모두가 단합하여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여수 유치를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한편, 여수시는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유치를 위해 '전 시민 지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수시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박람회장을 후보지로 추천하고, 27일에는 본회의 의결로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여수 유치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는 등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여수선인실천위원회와 여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도 지지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여수 유치를 기원하는 지역사회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여수=김현근기자

순천시, 시장이 앞장서 고충민원 해소 나선다

시장-민원인 간 대화의 날 운영 및 카카오톡으로 생활민원 신속 처리

순천시는 시민들의 고충민원 해소에 시장이 먼저 나서 해결하고, 카카오톡으로 생활민원을 접수해 신속히 처리하는 등 민선 8기 핵심 시책으로 민원처리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먼저 시는 시장이 민원인을 만나 애로사항이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민원인과 대화의 날'을 운영한다.

매월 1회 이상 운영할 '민원인과의 대화의 날'은 행정행위 등으로 불합리한 규제나 피해의 구제를 요구하는 민원이나 행정의 중재가 필요한 다수인 관련 민원, 이 밖에 시정발전 제안이나 건의 등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시장

이 직접 면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비롯한 순천시 누리집, 전화, 방문 등으로 생활불편 민원을 접수해 왔던 것을, 오는 28일부터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SNS 매체인 카카오톡(KakaoTalk) 채널 '일사천리 순천'을 통해 현장의 생활민원을 접수한다.

순천시민 누구든지 카카오톡(KakaoTalk) 가입 후 '일사천리 순천'을 검색해 친구 추가를 하면 이용이 가능하고, 도로 파손, 가로등 고장, 불법 폐기물 등 일상 속 크고 작은 안전과 불편 사항을 쉽게 제보할 수 있다.

순천=김승호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